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 역사관적 해석

Translation of Christian History View to Korean History

박재우

- I. 머리말
- II. 기독교 역사관과 한국사 연구 동향
- III. 기독교 역사관의 정의와 내용
- IV.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으로 본 한국사
- V. 맺음말



박재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계속해서 박사과정에서 학업 중이며, 전
공은 한국 중세사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이며, 웨스트민스트신학원과 수원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translate korean history in a view of christian history. This christian history view which adheres to the common methodology of history science should be profitabl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facts. And it should not extract several sentences of the Bible, but base on the essence of christian world view. In the view, I am going to relate christian history view to the conception of 'The kingdom of God'. Consequently I defined that the essence of history is the process that the man build utopia(a society).

In other words, christian history view studies the construction, the content and the meaning of the society which the man accomplished in history and the process which the society transform into another society. In addition to, it is the historical methodology to translate facts in the center of man.

In this respect, I evaluated the result of the study of korean history and translated the facts of the korean history.

1. 머리말

오늘날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역사지식이 모두 해석된 지식이라는 사실은 이제 역사학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일종'의 진리이다. 역사지식은 과거사실 자체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역사가의 해석을 거친 다음 우리에게 전달된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역사책 속에는 그것을 저술한 저자의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역사를 공부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구식 관념임에 틀림없다. 물론 해석을 한다고 해서 과거사실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이미 역사학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역사가는 반드시 주어진 유형·무형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덧붙여 그것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결코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실을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관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 역사관이 과거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기능하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기독교 역사가는 연구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그 중 '한국사'라는 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 동안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한국사와 연결하여 연구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이 생명력 있는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역사에 적용되어 그 유용성이 점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기독교 역사관이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첫째, 한국사를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기존의 연구 동향을 평가하고 둘째, 기독교 역사관의 정의와 내용을 알아보고 셋째, 한

국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해석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독교 역사관과 한국사 연구동향

‘기독교 역사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논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 연구동향을 검토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기독교 역사관을 전제로 한 한국사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기독교 역사관에 입각한 본격적인 한국사 연구 논문은 없다 해도 초보적인 형태나마 이런 시도를 한 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함석헌(咸錫憲)의 입장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가장 주목되어 온 것은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이다.¹⁾ 그는 이 책에서 성경의 역사관을 (1) 역사의 근본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있다 (2)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3) 역사는 종말이 있다 (4)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5) 인간은 도덕적 책임자이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²⁾ 그리고 세계역사는 마치 교향곡과 같아서 각 민족,

1) 이 책은 원래 「성서조선」에 게재된 것으로 「성서로 본 한국역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이지만 필자가 참고한 것은 1965년에 인쇄된 4판으로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곳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관으로 바라본 한국역사에 대한 해석이 앞의 제목으로 출판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다.

2) 咸錫憲, 「뜻으로 본 한국역사」, 제일출판사, 1965, pp. 41-53.

각 나라는 각각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한국사도 지리, 민족, 섭리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사 해석의 관점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섭리'인데 하나님은 한국사를 고난의 역사로 만드셨고, 이러한 특징은 지리적 요소 즉, 위치·지세·기후·경계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사 형성이 궁극적으로 지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리적 결정론은 거부한다.³⁾ 비록 지리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것은 주어진 터전으로서, 활동의 기회나 자료가 될 뿐이지 흥망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역사 흥망의 원인은 역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격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리가 고난의 터전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 위해 그렇게 생각해 본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⁴⁾ 그래서 한국 역사 형성의 동기는 지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 민족은 과거에는 착하고 용맹했지만 지금은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한국 민족이 생각하는 힘, 즉 스스로의 종교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한국사의 특징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종교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은 고난을 통해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함석헌은 한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지리, 민족, 섭리 등을 제시했지만, 역사 해석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서로 대등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민족, 지리 등은 역사 연구의

3) 李萬烈은 함석헌이 지리적 결정론에 빠졌다고 파악했는데(李萬烈, 1981, “한국의 근대사학”, 『韓國基督教의 歷史意識』, 1981, pp. 252-255; 『基督教의 歷史解釋』, 1994), 이는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咸錫憲은 지리적 요소를 제시하였지만 그보다 인간, 즉 민족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함석헌이 당시 유행하던 지리적 결정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사를 철저히 ‘고난의 역사’로 보려는 관점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지리적 상황을 강조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된다.

4) 앞의 책, 咸錫憲, 1965, pp. 90-92.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관점이 될 수는 없다.⁵⁾ 또한 민족과 민족 형성의 지리적 조건은 어떤 민족의 역사를 서술할 때 당연히 서술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함석헌은 그것을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환원시켜 버렸다. 더구나 함석헌은 이들이 왜 한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 사상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좀더 분명하게 기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는 한국사에 나타난 섭리의 경우, 그 내용을 ‘고난’이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기독교 가치관의 하나임은 틀림 없지만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을 균형있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섭리를 다른 것이 아닌 ‘고난’으로 이해한 것은 그 자신이 일제 치하에 살면서 겪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⁶⁾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적 용어는 사용했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해 그것을 기독교 가치관의 일부 즉, 고난에만 제한함으로써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

2. 이만열(李萬烈)의 입장

이와 달리 보다 실제적으로 한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은 이만열이다.⁷⁾ 그는 한국사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첫째 한국사를 민족사로 이해해야 하고 둘째,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하며 셋째, 민족사를 구속사와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물론 민족주의나 지리적 결정론과 같은 것이 그 동안 역사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관점으로 존재해 왔지만 그것은 역사 연구의 대상을 역사관의 내용으로 환원시킨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오류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6) 이만열은 함석헌이 일제 치하에서 패배주의적 인상을 질게 풍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李萬烈, 앞의 논문, 『韓國基督教과 歷史意識』, 1981, pp. 252-255).

7) 李萬烈, “한국사 인식의 기독교적 조명”, 『韓國基督教과 歷史意識』, 1981.

먼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사를 민족사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경계를 정하셨다”(행 17:26)고 하여, 성경이 민족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민족의 형성·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역사의 주동자도 민족 전체에서 발견되며, 민족 중에 특히 민중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한국사를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나 사회집단의 성쇠는 문화·도덕적 가치의 흐름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왕조 교체나 사회 교체가 일어날 경우 새 문화, 새 이념, 새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관의 담당자를 통해 개혁의 기운이 일어나 역사를 발전시킬 때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사를 복음전파 이후의 구속사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의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 하면서, 한글의 발명이 19세기 복음 전파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나, 유교의 충효사상, 불교의 극락과 지옥 및 도교의 불로장생 사상이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만열이 제시한 견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그가 새 문화, 새 이념, 새 가치관이 나올 때 그 가치관의 담당자를 통해 개혁의 기운이 일어나 왕조 교체나 사회 교체가 일어났다고 파악한 것은 상당히 유용한 역사해석의 관점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나 인간관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⁸⁾ 이처럼 인간이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은 반드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정치세력에게 적용될 때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8) 이러한 관점은 「현대·우상·이데올로기」(Bob Goudzwaard, 김재영 역, IVP, 1987), 「자본주의와 진보사상」(김병연·정세열 역, IVP, 1989)에 잘 나타나 있다.

개혁세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함석헌이 ‘한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한 견해는 비판했지만 민족의 차원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만열은 함석헌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함석헌은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로서 각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만이 역사 속에서 동일의식을 소유한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이 민족을 기독교적 관점의 하나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만열은 각 민족이 독특한 영역을 가졌다는 신약성경의 내용을 제시하여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⁹⁾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해서, 그것을 두고 민족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라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의 주동자를 민족 전체에서 발견해야 한다 하면서, 왕조사관을 탈피해 민중을 중심으로 민족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배자 역시 민족의 일원이며 그들 역시 현실 속에서 역사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사와 구속사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관으로 보는 관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적 역사관이라 할 때, 그 본질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역사관을 의미한다.

9)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라고 한 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민족이 역사서술의 기준이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근대에 수용되는 기독교 역사를 그 이전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서 연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학 방법론이지 반드시 기독교 역사관의 독특한 특징이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가 예를 들어 설명한 대로 불교가 중국에 수입될 때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불교 철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대승불교의 ‘공’(空)사상을 도교의 ‘무’(無)사상으로 바꾸어 이해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불교의 모습을 이해하면 불교가 중국에 수용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 기독교를 연구한다면 전통 문화와 연결된 한국 기독교가 서양과 비교하여 다른 독특한 점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굳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를 둔 기독교 역사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즉, 이 관점은 교회사 해석을 위한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¹⁰⁾

3. 김정준(金正俊)의 입장

이만열의 연구가 자극제가 되어 몇 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김정준은 신학자의 눈으로 본 한국사의 기독교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첫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간섭하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둘째,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셋째, 한국사는 인류 역사의 하나로서 독자적, 역사적 존재와 위치 및 사명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였다.¹¹⁾ 또 한국사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10) 이만열은 그 동안 한국 기독교사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李萬烈, “한국 기독교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基督教과 歷史意識』, 1981 / “민족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기독교 100년”,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1991). 바로 이 점이 그로 하여금 민족을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생각된다.

11)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은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구속적 은총을 민족적으로 받지 못한 전근대의 한국 민족을 하나

간섭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최악사까지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역사이고, 기독교 전래 이전의 역사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하였다.¹²⁾ 그러나 이 주장은 김정준이 말한대로 역사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 이해이기 때문에¹³⁾ 역사철학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실증적이며 전문적인 한국사 연구에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4. 이원순(李元淳)의 입장

이원순은 교회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한 역사적 탐구이며, 민족사는 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투쟁이 담긴 역사 창조와 정신의 성과를 담은 것으로 정치·경제·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사가 곧 민족사일 수는 없지만 민족사를 교회사적 관점 즉, 기독교적 입장에서 고찰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이를 전제로 하여 한국사를 기독교 전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전자를 고난과 통일의 시대, 후자를 시련과 소망의 시대로 정의하였다.¹⁴⁾ 먼저 고난과 통일의 시대에서는 첫째, 한민족의 활동무대는 약속된 복지이며 둘째, 무대에서 우리 민족은 통일국가를 이루었는데, 분열과 상극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통일과 화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흘린 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셋째, 창조적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민족문화를 형성 발전시킨 문화 능력은 복음의 자율적 수용과 토착화에 대한 잠재력을 형성했으며 넷째, 보편적 신앙체와 연계하

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이다. 오히려 한국 민족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12) 김정준,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基督教와 歷史解釋』, 1994.

13) 김정준, 위의 논문, 1994, p. 114.

14) 이원순, “한국사의 기독교적 해석”, 『基督教와 歷史解釋』, 1994.

는 체험을 가짐으로써 다른 종교 체계를 수용 실천할 수 있는 역사적 체험을 했고 다섯째, 도덕적, 문화적 가치의 순역(順逆)에서 정치적 흥망을 거듭 체험함으로써 기독교적 사랑의 역사를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시련과 소망의 시대에 대해서는 이 시기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역할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족을 교회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 역사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물론 역사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일반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교회사적인 관점을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이는 연구 대상인 교회사와 이를 해석하는 관점인 기독교 역사관을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생각이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같은 교회사라고 할지라도 유물론이나 관념론적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사를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를 기독교 역사관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기독교 전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는 두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징을 정의하면서 전자는 고난과 통일의 시대로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둔 것이고, 후자의 시련과 소망의 시대는 그리스도 이후의 부르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였다.¹⁵⁾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외형적 측면을 한국사와 연결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인지는 의문이 든다.

5. 김영재(金英才)의 입장

김영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을 규명하고 다른 민족

15) 이원순, 위의 논문, 1994, pp. 123-124.

역사와의 차이점을 구분함으로써 한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¹⁶⁾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민족사이면서 구원사이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구원사로서의 민족사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사도 구원사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국사를 기독교적 견지에서 이해하고자 해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교회사를 서술할 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상을 규범으로 해서, 역사상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반은총과 도덕률을 주셔서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종교적 책임은 묻지 않고 다만 도덕률에 따라 심판하신다. 종교적 규범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오래 참으시며 관용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한국사는 구약의 종교 규범으로 파악하지 말고 도덕률에 기초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기독교 이전의 종교도 윤리적·문화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재의 주장은 한국사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신학적 범주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사는 도덕률 한가지로만 평가해야 하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해석할 수 없으며, 이는 구속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되는 오늘날의 교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16) 김영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역사 - 한국역사의 기독교적 이해”, 『基督教의 歷史解釋』, 1994.

6. 윤경로의 입장

윤경로는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한국 기독교인이 국민의 1/4이나 되므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복음화를 위해서는 민족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 한국적 신학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의 사건에 들어가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논증하지는 못하고 한국 교회의 역사적 측면과 근·현대사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선에서 그침으로써¹⁷⁾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역사를 해석하지는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를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연구한 전문적인 논문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를 한 논문들도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기독교적 가치의 일부분을 끌어들이되 왜 그 내용이 기독교 역사관의 구성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또한 일반 역사학에 이용되는 학문적 방법론을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사를 교회사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사를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기독교 역사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7) 윤경로,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한국 근·현대사 - 한국 기독교와 근·현대사와의 관계성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基督教과 歷史解釋』, 1994.

III. 기독교 역사관의 정의와 내용

1. 기독교 역사관의 정의와 범주

기독교 역사관이란 역사를 해석하는 기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학이라는 학문에 기독교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관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학을 ‘기독교 역사학’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기독교 역사관이야말로 기독교 역사학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기독교 역사학이란 기독교와 역사학이 혼재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역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역사학도 역사학 나름의 방법론이 있다. 역사학은 과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전문적인 학문이다. 이러한 과거 사실은 대체로 사료라는 형태로 보존된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인 역사철학은 말하지 않는다. 역사가는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실증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즉, 실증되지 않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역사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학도 역사학의 일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기독교 역사학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무시한다면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앙이나 역사신학은 될 수 있어도 역사학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단지 과거 사실 자체만을 밝히는 것을 임무로 삼지는 않는다. 실제로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분석해서 역사적 진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역사관이라 한다. 역사가는 과거 사실을 대할 때 존재하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과거 사실을 이용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나 전제를 증명하고자 한다.¹⁸⁾ 이것이야말로 역

사가의 주된 임무이다.¹⁹⁾ 그러므로 역사학은 사료에 근거하되 해석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로 관념론 역사학, 유물론 역사학, 기독교 역사학, 심리적 역사학 등의 말이 나올 수 있다. 관념론이나 유물론 그리고 심리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그 각각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고,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학이란 바로 역사학이라는 학문적 방법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과거 사실을 해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이처럼 역사학이 기독교적 성격을 갖도록 해 주는 기독교 역사관은 그동안 대체로 신학적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잘 알려진대로 구속사 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불려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많은 신학자에 의해 논증되고 연구되어 온 것으로 역사적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 또는 만물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적절하겠지만 역사학 방법론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에게는 그렇게 많이 수용되지 않는 관점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와 통치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만, 일반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관이 기독교적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사회관 등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만 그 명칭을 기독교 역사관이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⁰⁾ 즉,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반드시 성경이 제공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18) Donald A. Macphree, “歷史의 女神과 그리스도와의 만남”, 『基督教과 歷史理解』, 총신대학출판부, 1978, p. 118.

19) George M. Marsden, “基督教的 觀點에서는 어떻게 歷史를 가르쳐야 하는가”, 『基督教과 歷史理解』, 총신대학출판부, 1978, p. 49.

20) C. T. McIntire, “基督教的 歷史敍述의 當面課題”, 『基督教과 歷史理解』, 총신대학출판부, 1978, p. 73.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이 가진 범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대로 역사를 서술할 수 없다. 역사가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할 때 직접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²¹⁾ 둘째, 교회사를 신학적 관점에서 구속사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 역시 구약을 기록하듯이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오늘날의 역사학 방법론을 사용해서는 구속사와 세속사를 구분해서 역사를 연구할 수 없다. 심지어 오늘날 구약사와 신약사를 서술할 때조차도 역사가는 구약의 선지자 흥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만 이용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가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역사를 기독교적 안목으로 서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사상을 하나의 관점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넷째, 그것을 관점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의 특정 내용이 아닌 전반적인 체계를 응용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인용한다거나 내용의 일부를 역사에 적용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관이라 생각하는 작위적인 해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위의 내용 가운데 첫째, 둘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셋째, 넷째 내용은 좀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기독교 역사가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등의 전제에 기초하면서도 역사적 사료들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기독교 역사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기독교적 전제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성경적 사건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8·15 해방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하다고 해서 둘을 손쉽게 연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없다.²²⁾ 왜냐하

21) C. T. McIntire, 앞의 논문, 「基督教과 歷史理解」, 총신대학교출판부, 1978, pp. 54-56.

22) 8·15 해방의 경우 대체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었

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념이나 신앙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학문적 역사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관은 비록 기독교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등을 기초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일부나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정도에서 그치거나, 학문적 방법론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 역사관은 기형적 모습을 띠게 되거나, 형식만 기독교 역사관이지 내용은 다른 일반 역사학적 관점이 혼합되어 수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역사학의 공통 분모를 가지면서도 독특한 기독교적 요소를 보유하려면 그 내용이 반드시 기독교 가치관의 중심 사상에서 추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기독교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등이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²³⁾

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남북분단과 6·25를 경험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둔다면 8·15를 쉽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사해석의 방법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8·15해방과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이해”(윤경로, 『基督教思想』(1990),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1992)를 참고할 것.

23) ‘하나님 나라’ 사상은 신약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용성이 인정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단순히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오광만 역, 풍만출판사, 1986), 「하나님의 나라」(Herman Ridderbos, 오광만 역, 엠마오, 1987)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왕이신 하나님과 통치 대상인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약에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성인 교회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사역은 전 우주에 미치는 것으로서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했고,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²⁴⁾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⁵⁾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단의 나라’ 또는 ‘세상 나라’라는 개념을 제공한다. 이 때 세상 나라의 왕은 사단이며, 백성은 불신자이고, 사단은 불신자를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는 영적인 의미의 나라들이며, 역사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²⁶⁾ 한편 세상 나라는 나라를 이루는 구성적 측면 - 왕, 백성, 통치 행위 - 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왜곡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 유형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각각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유형화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규범인 계명에

24) George Eldon Ladd, 「그리스도와 역사」, 새순출판사, 1986, p. 37.

25) W. Stanford Reid, 「기독교 역사관」, 1989, pp. 6-7.

26) Brian J. Walsh / J. Richard Middleton, 황영철 역,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IVP, 1987, pp. 85-87.

27) W. Stanford Reid, 앞의 책, 1989, pp. 8-9.

순종하여 살면서 이루는 하나의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때 하나님의 계명은 적어도 그 백성에게는 이상적으로 추구되는 삶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그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화된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혹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백성에게는 자신들이 추구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어떤 곳보다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세상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약에서 세상 나라는 수많은 이방 나라이며, 신약에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이다. 세상 나라는 그 백성에게 나뭇의 규범을 제시해 주고 백성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추구한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불의한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은 그들 나뭇대로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인 세상 나라를 세우기며, 그것이 그들 역사의 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사상을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모든 인간은 나뭇대로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또는 민족이든 국가이든 인류 전체이든 간에 각각 지향하는 삶과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 사상에 근거한 기독교 역사관이 역사의 본질에 대해 제공하는 관점은 ‘역사란 인간이 이상사회를 세우기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지협적인 기독교 사상이나 한두 성경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추론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보다 본질적인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가 과연 전문적인 역사학 논문을 서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정의에 내포된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역사의 본

질을, 그것을 만들어가는 주체인 ‘인간’과 인간이 세워가는 ‘사회’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을 이상사회를 형성하는 주체로 파악하고²⁸⁾ 인간의 역사적 존재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이상사회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기독교 역사관은 이상사회를 형성한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면서도 역사 속에서 존재한 모든 형태의 인간이 주체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그것은 개인이나 영웅일 수도 있고, 집단이나 세력일 수도 있으며, 왕조나 귀족, 계급이나 계층, 나이가 민족이나 인류 전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는 이른바 영웅사관, 개인사관, 왕조사관, 계급사관, 민족사관과 명백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 역사 해석의 대상이 되는 영웅, 개인, 왕조, 계급, 민족을, 역사를 해석하는 궁극적인 기준인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관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관점은 다른 대상의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는데 방해하는 결함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이것들을 역사 해석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 치우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의 역사상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혼재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정하게 통일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가는 연구 대상 속에서 당시에 주도적으로 나타난 이상사회의 모습과 그밖에 다른 종류의 이상사회의 모습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가를 연구 과제로 삼는다. 물론 이 때 각양 이상사회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입장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들 각각이 자신이 추구한 사회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둘째,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을 삶의 관점 즉, 세계관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며, 이상사회에는 그들의 세계관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

28) McIntire는 인간 중심의 역사서술이 기독교 역사관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C. T. McIntire, 앞의 논문, 「基督教과 歷史理解」, 총신대학출판부, 1978, p. 79를 참고할 것.

한다. 이 때 세계관이란 단순히 종교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재구성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사상 체계를 말한다. 즉, 인간을 이해할 때, 인생과 사회 및 우주에 대해 어떤 견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이상사회는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모든 측면을 갖춘 하나의 사회 형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과 집단, 세력과 민족 등 모든 형태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각각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내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 역사는 한 사회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형성한 인간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유행화되었는가를 연구 과제로 삼는다.

셋째,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이 자신의 세계관을 실현하고 이상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계급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명예적, 종교적 동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러한 동기 중에 어느 특정한 것을 지적하여 그것이 다른 것보다 역사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입장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동기를 찾기 보다 각각의 동기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갖게 될 현실적인 비중과 의미를 밝혀 내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는다.

넷째,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이면서도, 형성된 문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반대로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역사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적 산물을 인간이 이상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자 이상 사회의 일부로 파악하여, 제도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²⁹⁾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는 기왕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적 가능성을

29) David Bebbington은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통해 생겨나는 것이지, 역사적 배경을 초월해서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 형성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또 그것이 이전의 역사적 배경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구 대상을 취급할 때 그것이 철저하게 역사적 제한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둘 사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는다.

다섯째,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을 도덕적 모순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므로,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사회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관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시도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집단이 세운 이상사회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상사회를 형성한 인간들의 이기적 욕망-역사학에서는 이것을 보통 '이해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다-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 욕망을 가진 인간들의 외부적 침략에 의해서도 사회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회를 연구할 때 그것이 인간과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해 관계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세력은 악(惡), 신진세력은 선(善)이라는 도식적이고 일방적인 관점으로 역사적 실체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새롭게 형성된 사회도 반드시 내적·외적인 모순이 존재하며 그러한 내적·외적 모순 때문에 다음 세대에 역사적 과제를 넘겨주게 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자연 환경과 다른 동료에 의하여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David Bebbington, 「역사관의 유형들」, 1986, p. 219).

그렇지만 여섯째, 역사 속에서 이상사회를 세워가는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그것이야말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체로 역사란 이전 시기의 사회가 지닌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면서 기존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때의 변화를 반드시 이른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지 않는 것도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당시의 인간과 그들이 세운 사회 그리고 역사의 전개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연구 대상마다 각각 달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인간과 그들이 형성한 사회의 내용과 변화 과정을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역사의 본질에 대한 정의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사해석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형성한다. 결국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추구하고 형성했던 사회가 어떤 구조, 내용, 성격을 가졌으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른 종류의 사회로 변화했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본질로 하여 관련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밝혀내는 역사학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IV.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으로 본 한국사

이제 앞서 살펴본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해석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자.

먼저 기독교 역사관은 기존에 한국사 연구자들이 연구해 왔던 모든 종류의 과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의 정의를 인간이 이상사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함으로써 무엇보다 인간이 형성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와 그 속에 포함된 인간의 삶과 사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관은 단지 관념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결코 사상사나 지성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골품사회, 문벌사회, 양반사회, 자본주의 맹아, 향촌사회, 민란, 공산주의 운동 등 모든 형태가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의 양반사회는 양반이 지향했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이를 단순히 양반만의 사회로 인식하기보다 양반이 지향하는 이상사회가 주도적으로 유형화된 사회라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중인이나 평민, 천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가 포함되거나 융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 역사는 실제적이고도 생동하는 조선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신라를 진골사회, 고려를 문벌사회로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³⁰⁾

그러나 역사 속의 인간을 각각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주체로 파악하는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른바 지배층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왕조사관과 다르다. 왕조사관은 왕조나 지배층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피지배층인 민중은 객체로 파악하지만, 기독교 역사관은 이들을 모두 각각의 사회를 세wig는 역사의 주체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지배층인 민중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도 민중의 계급투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는 민중사관과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중사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른바 ‘민란’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회경제적 모순에 의한 계급대립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한 양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상사회를 민중들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배층인 양반과 대립한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 때 이상사회는 앞서 말한대로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모든 측면을 갖춘 하나의 사회 형태를 말하며, 이러한 의미의 사회상에서 양반과 민중의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대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0) 물론 신라를 진골사회, 고려를 골품사회, 조선을 양반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굳이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이라기보다 한국사 연구라는 공동의 연구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학설이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관은 한국사 연구라는 공통 분모 위에 존재하는 학문적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학계의 수준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의 역사상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때 양반이나 민중 모두가 역사 형성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단지 양반은 일반적으로 지배층으로 존재하면서 정치·사회·경제적 우위를 독점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민중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권력으로 현실을 주도해 나갔던 것 뿐이다. 그러나 민중은 조선사회를 지도할 만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형적인 유교적 질서를 지향하던 양반과는 달리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했고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상사회의 중심에 그 사회를 조직하는 능력을 가진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조선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사회가 된 것은, 양반이 성리학이라는 사상 체계를 통해 고려를 변혁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되어,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받아들이면서 조선 초기 중앙정계에서 정권을 장악한 훈구파에 반발하여 사림파는 순수한 성리학적 입장에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냈고, 사회(土禍)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리학 이념이 주도하는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여 마침내 중앙에서는 봉당정치를 형성하고 지방에서는 향교와 사당을 건립하여 사회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가는 심지어 그 모습이 뚜렷하지 않을 때조차도 시대 정신 또는 사상이 각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 유형화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게 된다.

또한 기독교 역사는 인간이 세계관을 실현할 때에도 그 동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고 조선왕조를 개창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사상적 지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속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조선왕조를 세워가는 과정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반대파에 대한 많은 숙청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조선왕조의 성립이 단순히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상적 동기에서만 나왔다고만 권력을 추구한 정치적 목적도 함께 존재했다고 파악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

럽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관은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인간의 동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해석하는 데 적절한 입장을 갖는다.

한편 다양한 인간의 동기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을 처음부터 중요시하지 않고, 여러 가치를 현실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균형있게 인식하는 기독교 역사의관의 관점은 역사 해석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원효가 불교대중화를 추진한 것이 단순히 그가 6두품 출신으로 진골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기보다 그것이 종교적 행위인 것이 틀림없다면 원효가 가진 사상적 요소에서 먼저 동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른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고려 광종이 불교계를 통합하려고 노력한 것을 단순히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도 해석상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지위에서 볼 때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 종교적 동기보다는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광종에게 종교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교계를 통합하려는 광종의 사상적 배경도 마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종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욱 컸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역사 형성의 동기를, 특정한 한두 가지 동기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은 역사 자체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학도 수긍할 수 없는 견해이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관은 이상사회가 기존의 사회와 역사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성리학이 나룸대로의 사상체계를 형성하면서 고려 말 조선 초에 수입되고 발전한 것은 당시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담당할 사회 계층의 성장 및 사상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지눌의 불교사상 또한 이전의 교종과 선종 사상을 매개로 하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눌사상이 지향하는 독특한 내용과 구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지눌사상의 독창성은 종래의 사상적 발전을 전제로 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말 개화파가 추구하던 사회는 역사의 전개 방향에서 반봉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 자신은 양반 지주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수하려는 입장에 있었다. 이처럼 어떤 세력이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경우 기존 사회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현실인데, 그것은 인간이 역사적 존재로서 과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는 어떤 세력이나 사회를 연구할 때 그것이 평지에서 돌출한 것처럼 파악하지 않고 이전 사회의 구조와 지향점을 연구하여 현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 생겨난 현재 사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하게 된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관은 연구 대상의 역사적 한계와 성격을 밝히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역사관은 인간을 도덕적 모순을 가진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이상사회도 내적·외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사회도 그 사회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를 전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주도적인 입장을 가졌던 세력의 이해 관계가 가장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재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독재사회일텐데 그것은 민중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없는 사회이다. 또한 신라 진골귀족이 추구하는 사회는 6두품과 지방세력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었고, 고려 전기 문벌들이 추구했던 문신·문벌사회는 다수의 무신들과 민중들에게 불합리한 사회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 지배층이 부패하고 성리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즈음 발생한 민란에서 민중들은 미륵불이 지배하는 사회를 세우려 했지만 양반 지배층에 의해 좌절되었고, 근대 개화파의 근대지향적 입장은 수구파가 지향하는 사회와 대립하였고 뒤에는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가는 어떤 사회 속에 반영된 인간들 - 주로 그 사회를 형성한 주도 세력의 이해 관계가 가장 많이 반영될 것이므로 그들의 이해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의 이해 관계를

밝혀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를 세워가는 인간의 노력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의 경우, 원나라 간섭기에 개혁세력에 편입되어 역사의 변화를 모색했으나 계속 좌절되다가 고려 말에 정치세력화하여 이성계 세력의 군사력과 결합하여 세족(世族)을 몰락시키고 마침내 조선왕조를 개창한 것처럼, 인간은 실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들이 추구한 이상사회를 형성하였다. 또한 고려 후기 사회상황을 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으로 본다면, 세족이 형성한 이상사회가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파행적인 모습을 나타내자 이에 대항하여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상사회를 형성하는 인간의 노력은 역사 형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계속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선악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도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이다. 앞서 말한 대로 고려 후기 세족에 비해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신진사대부가 조선 초에 훈구파가 되어 대토지를 소유하는 등 보수화 경향을 보이자 이에 등장한 것이 사림파였고, 그들이 성리학적 봉당정치로 꽃을 피우다가 차츰 역사적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자 탕평정치로 변화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좌우의 대립 문제도 단순히 선악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이나 실체를 단순히 선악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 안목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기독교 역사관이 지지하지 않는다.³¹⁾

31)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시기나 대상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반대되는 시기나 대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오류에서 건져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관은 결코 역사학의 학문적 방법론을 떠난 추상적인 역사철학이나 신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 전제를 벗어나서는 학문적인 역사학의 도구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관이 다른 역사관과 달리 기독교적 독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독교 사상의 본질에 깊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기독교 사상의 한 측면이나 성경의 몇몇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사상의 본질적인 내용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관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연결시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필자는 역사의 본질을 ‘인간이 이상사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역사 형성의 주체인 인간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자취인 사회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학의 과제는 인간이 역사 속에서 세워 왔던 사회가 어떤 구조와 내용·성격을 가졌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다른 종류의 사회로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한국사의 사실(史實)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기독교 역사관에서 보는 한국사의 내용은 역사학이라는 공통 기반 때문에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독특한 관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사례는 한국사의 모든 대상을 연구하기 위한 그야말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는 기독교 역사관이 제공하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기초로 훨씬 더 많은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필자가 제시한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도 기독교 사상

의 본질이 풍성한 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또한 수많은 기독교 역사관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런 기독교 역사관의 내용을 밝혀내고 그것을 구체적인 역사 서술에 적용·해석하는 작업은 기독교 역사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제일출판사, 1965.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1.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 윤경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기독교와 역사해석」, 성광문화사, 1994.
- Marsden, George, / Roberts, Frank, 홍치모 역, 「기독교와 역사이해」, 총신
대학출판부, 1978.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황영철 역,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IVP, 1986.
- Ladd, G. E., 이남종 역, 「그리스도와 역사」, 새순출판사, 1986.
- Bebbington, David, 천진석·김진영 역, 「역사관의 유형들」, 두란노서원,
1986.
- Goudzwaard, Bob, 김재영 역, 「현대·우상·이데올로기」, IVP, 1987.
- Ridderbos, Herman, 오광만 역, 「하나님 나라」, 엠마오, 1987.
- Reid, W. Stanford, 「기독교 역사관」, IVP, 1989.
- Goudzwaard, Bob, 김병연 / 정세열 역,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1989.